



미국·일본·유럽의 양돈 현황 (I)

맹달호역
(본회 수원지부장)

1. 주요 양돈생산국의 개황

각국의 양돈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그 기반인 국토면적과 논용지의 비율, 인구 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1>

가. 농용지 면적의 차이

가축사양두수가 많은 축산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의 면적은 일본에 비하면 소련이 59배, 캐나다 26배, 미국이 25배, 호주가 20배로 되어 있고 이들 나라들에 공통되고 있는 점은 단지 넓다는 것 뿐이고 기상 지세 등의 자연적 조건면에서는 농업생산에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유럽의 주요 양돈 생산국은 일본의 국토면적을 100으로 하였을때 영국은 65, 통일독일은 94, 덴마크는 11, 네덜란드는

<표1> 주요 양돈 생산국의 국토 총면적, 인구 및 농용지

구 분	국토총면적 (km ²)	총인구 (1,000인)	농용지면적 (%)	농업자1인당 농지면적(ha)
중 국	9,561,000	1,104,000	43.3	0.9
한 국	99,061	42,000	22.5	0.4
일 본	377,801	122,100	14.2	1.1
덴 마 크	43,075	5,130	65.2	18.6
프 랑 스	551,500	55,870	56.9	20.6
구 서 독	248,577	61,200	48.1	9.8
네 델 란 드	40,844	14,760	54.0	8.1
소 련	22,402,200	283,680	27.0	28.6
영 국	244,100	57,080	75.7	30.6
미 국	9,372,644	246,330	46.1	137.1
호 주	7,686,900	16,249	62.8	1,155.8
카 나 다	9,976,139	25,950	7.8	159.2

(FAO년감, 1988)

10.8으로 작으나 일본보다 많은 돼지를 사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나라의 특징은 총인구가 일본보다 적고 농업인구의 비율도 낮아, 국토를 점하는 농용지의 비율

이 일본보다 훨씬 높고 농민 1인당의 농용지 면적이 일본은 1.1ha 인데 비해 영국은 30.6ha, 구서독 9.8ha, 덴마크는 18.6ha, 네덜란드는 8.1ha로 토지를 기반으로 한 축

산의 입지는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각 나라들은 기후가 냉량하여 수도작 등 도저히 불가능한 지대에 속하고 있다.

나. 규모확대와 성적향상

과거 10년간 세계적으로는 그 사양두수는 7~8%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미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국내수요가 대체로 제자리 걸음이거나 감소경향이 있다. 또한 사양두수는 더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약간의 수출량이 많은 네덜란드가 비교적 높은 신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표2>

1호당의 사양두수의 증가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양돈 선진국에 있어 현저하다. 그러나 구서독에서는 양돈농가의 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어 그 결과 10수년전 부터 사양두수 및 호수 모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표3>

최근 10년동안 각국의 사양성적은 향상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은 국토가 좁고 대규모 사양의 비율이 높다. 돈육의 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 나라들은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중국, 캐나다, 구동독, 대만 미국 등이다.

유럽 여러나라들 중 일본에의 돈육수출량이 제일 많은 덴마크에

<표2> 세계의 돼지 사양두수(주요 생산국)

구분	1982	1985	1987	1989 ¹⁾	1990 ²⁾
전 세계	687,977	700,218	734,597	748,961	736,650
중국	293,702	306,790	337,191	342,220	332,000
소련	73,303	77,800	79,501	78,143	78,500
미국	58,698	54,043	50,920	55,499	55,700
브라질	33,500	30,000	31,700	33,200	32,700
구서독	22,310	23,617	24,503	22,693	22,888
폴란드	19,081	17,190	19,619	20,169	19,362
스페인	10,696	12,000	15,782	16,268	16,300
루마니아	12,464	14,777	14,711	15,400	15,510
네덜란드	10,193	11,800	14,063	13,820	13,700
구동독	12,869	13,191	12,840	12,464	12,152
일본	10,040	10,718	11,354	11,866	11,880
프랑스	11,795	11,000	12,063	11,866	11,601
캐나다	10,035	10,852	9,996	10,779	10,650
이탈리아	9,015	8,976	9,278	9,400	9,450
덴마크	9,785	8,960	9,422	9,105	9,275
멕시코	17,150	12,320	12,357	9,003	8,283
영국	7,910	7,793	7,955	7,628	7,600
대만	4,826	6,569	7,057	6,954	6,900
한국	1,832	2,985	3,347	4,852	5,000

1) 잠정치 2) 예측치

미국농무성 자료(USDA)

있어서는 20년전에는 소규모 양돈가 86.5%에서 사양하고 있는 두수는 약 50%를 점하고 있었으나 1989년에는 그 호수는 60.2%의 감소에 멈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수는 전체의 약 8%에 까지 감소하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도 1,000두 이상을 사양하는 10.6%의 농장은 총 두수의 2/3를 사양하게 되고 기업적 경

영의 진출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상황도 또한 같으며 20년전 당시, 87만호였던 양돈장은 최근에는 약 1/3인 33만호로 감소하고 1,000두 이상의 사양농장(전체의 3%)에서 총 사양두수를 점하는 비율은 36%로 되어 있다. 이전에는 번식을 포함 방목양돈이 성행하였으나 조방적 관리하에서

〈표3〉 유럽 주요양돈생산국의 사양규모별 상황 추이(%)

국별		연도	두수					
			1~9	10~49	50~199	200~399	400~999	1,000이상
사	구 서 독	1983	49.5	29.1	15.6	3.7	2.1	0.2
		1989	47.7	26.9	16.9	5.0	3.3	
양	프 랑 스	1983	71.2	13.4	7.9	3.6	3.9	1.2
		1989	77.4	8.2	5.8	3.5	3.9	
호	네 델 란 드	1983	7.0	15.2	35.6	19.2	23.0	10.2
		1989	5.4	10.7	31.9	19.5	22.0	
수	영 국	1983	24.3	27.5	21.8	9.5	16.9	10.6
		1989	24.6	25.6	17.9	10.1	11.1	
수	덴 마 크	1983	11.4	30.6	32.6	12.4	13.0	4.5
		1989	9.0	25.7	31.6	14.6	14.6	
사	구 서 독	1983	3.8	14.4	32.1	21.8	27.9	5.6
		1989	2.9	10.3	27.2	22.7	31.5	
양	프 랑 스	1983	3.1	5.5	15.5	19.5	56.4	30.4
		1989	2.7	3.0	10.1	16.2	37.6	
두	네 델 란 드	1983	0.1	1.5	14.1	19.2	65.1	32.2
		1989	0.1	0.8	9.1	13.7	34.9	
수	영 국	1983	0.3	2.4	8.4	9.7	79.2	66.5
		1989	0.2	1.6	4.9	7.4	19.3	
수	덴 마 크	1983	0.3	4.6	18.9	19.7	56.5	29.9
		1989	0.2	2.8	13.7	16.9	36.5	

(EUROSTAT)

는 그 성적이 떨어져 현재는 완비된 시설에서 살코기(赤肉) 생산성이 높은 계통의 작출이 진행되어 효율적인 경영도 많고 양돈업에서 참고로 할 점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의 양돈업계 금후동향은 농장수는 감소할 것이나 경영규모의 확대가 더욱 진행되고 모든의 생산성이 향상하는 결과로, 총생산두수는 유지될 것이다. 또 종래의 생

체거래로 부터 지육의 등급제 거래가 일반화되어 이의 완성 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경향이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사양호수는 30년전대비 1/25로서 4만호로 격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양두수는 약 5배, 1호당의 평균 사양두수는 160배에 달하고 1000두 이상의 사양규모 호수는 1750호(총농가수의 13.5%)가 전생산량

의 40%이상 출하하고 있다. 호수의 감소는 금후에도 계속되고 영세한 양돈농가 1만 5천호는 수년을 지나지 않아 폐업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세기 말 양돈농가수는 1만 수천호로 감소될 것이다.

2. 각국의 양돈업 고찰

이상에서 기술한 주요 양돈생산국의 실태와 일본 양돈업계의 진로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으로 좁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자연적 입지조건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입지조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축산업은 본래 넓은 목야지나 경지를 갖고 있으면서 사람의 식료로서 직접 이용하는 작물에 의해 사료로 되는 것을 가꾸어 가축에 주어 축산물로서 이용하는 편이 나은 나라, 혹은 식료로서 부적당한 것만 취할 수 밖에 없는 나라들에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세계의 각나라와 민족은 각기 그 지역에서 제일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주식으로 하여 생활하였고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국토가 좁고 경지가 적은데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우회 생산적인 축산은 비효율적이고 인구부양력도 낮아지

〈표4〉 세계의 돈육생산량(주요생산국)

(단위 : 지육, 1,000톤)

구 분	1986	1987	1988	1989 ¹⁾	1990 ²⁾
중 국	17,960	18,349	20,170	20,530	21,160
미 국	6,379	6,520	7,114	7,208	7,285
소 련	6,065	6,324	6,476	6,600	6,650
구 서 독	2,832	2,856	2,838	2,700	2,720
폴 란 드	1,749	1,745	1,828	1,685	1,685
프 랑 스	1,520	1,536	1,599	1,610	1,610
일 본	1,552	1,581	1,578	1,570	1,575
네 덜 란 드	1,449	1,524	1,623	1,575	1,530
구 독 일	1,430	1,483	1,414	1,436	1,324
덴 마 크	1,143	1,149	1,168	1,182	1,220
카 나 다	1,097	1,131	1,188	1,150	1,115
영 국	1,022	1,025	1,048	993	1,021
대 만	868	938	911	934	910
한 국	322	376	433	468	485
주요국합계	56,476	58,676	61,718	61,858	62,537

1) 잠정치, 2) 예측치

(USDA)

고 자연적, 사회경제적 입지로 보아도 결코 적당한 산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은 옛부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논 밭 작물을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로 풍부한 수산물의 혜택을 입어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2차대전 패전 이후 구미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 의, 식, 주의 모든 것이 그들을 모방하는 것이 보다 좋은 일이고 문화국가에 가까워지는 길인것

처럼 착각한 감이 없지 않다.

이와같은 환경 속에서 급속히 신장한 일본의 축산은 다른 공업 생산과 같이 해외로부터 대량의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것으로만 갖고 존립가능한, 변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태가 주류로 형성되었다.

토지에 입각하지 않는 공업적 축산은 양계나 양돈에 머물지 않고 지금은 낙농이나 육우사양에 이르게까지 되었고 각기의 부문에서 규모확대의 잇점을 살려 확대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지조건에 반한 경영내부는 많은 문제점이나 모순을 안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토지조건에 대하여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의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본래 축산국으로서의 요인을 갖추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나 화란, 구서독이더라도 전국토를 접하는 농용지 면적의 비율은 높고 또한 농업인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많은 1호당의 경영면적을 확보하고 토지에 밀착한 양돈을 행하고 있다. 같은 섬나라인 영국은 국토는 일본의 65%에 지나지 않으나 평야가 많고 농용지는 3.5배, 농업자 1인당의 농지는 28배의 30.6ha에 이르고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도시의 지가폭등은 지방에 까지 미치고 농업용지는 택지가격과는 단위가 다른 안가기는 하나 토지에 입각한 축산경영을 행하기 위해서는 복해도의 벽지를 제외하고는 채산이 맞지 않는 가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국제경쟁의 문제로 되어 있다.

〈다음호 계속〉

